

추경 누락 통합 비용 573억 재원 마련 '골머리'

'전쟁추경' 한정 지역맞춤형 예산 배제 市·道,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중등발전 경제위기...예비비 투입도 '빠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제1호 광역 단위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행정통합 관련 비용 573억원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경에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건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57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양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체계 일원화 등 통합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광주·무안·전남 동부 등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추경이 중등 전정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지원에 한정해 지원됨에 따라 행정통합 비용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당장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전남도와 광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건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투입과 6월 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행안부가 추경 과정에서 전남도·광주시가 건의한 573억원 가운데 177억원을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통과

한 만큼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도·광주시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 예산이다.

하지만 당장 가용 가능한 예비비 잔액이 재난·재해비를 제외하면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 중등 전정 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를 투입한 만큼, 활용 가능한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경우 예비

비 재원 마련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광주시는 행안부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에서 국비 지원을 재차 건의해 국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행정통합 소요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문제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기표 용구 모양 유채꽃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6일 나주시 영산강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이 기표 도장 마크 형상으로 조성된 유채꽃밭을 거닐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장관호·정성홍 통합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

통합공천委...100% 여론조사 경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전교조 출신 장관호 예비후보와 정성홍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와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는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교육감 전남·광주 통합 공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단일화 합의를 선언했다.

시민공천위는 "광주시민공천위원회 공천 후보 정성홍 후보와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추대 후보 장관호 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위는 "현재 전남과 광주 교육 현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시교육감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도교육감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을 사·도민의 힘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있다"면서 "민주·진보 교육을 바라는 사·도민 뜻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 공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천위는 조만간 통합 공천위를 구성해 여론조사 100% 방식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

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통합 공천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청렴성, 책임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전남과 광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단일화 이후의 정책 방향과 실행 역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시도민공천위원회가 경선 방식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며 단일화에 난항을 겪자 예비후보가 광주시민공천위가 주장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하며 굴복할 전망이다. /박선욱 기자

민형배, 세월호 12주기 광주·목포 기억식 참석

"그날의 슬픔 기억" 희생자 추모·현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광주와 목포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천변공원 '기억의 공간'에서 열린 수완지구 기억식과 오후 목포신항에서 진행된 기억식에 각각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완마을촛불모임 주관으로 열린 광주 기억식은 '열두번째 봄,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과 책임의 가치를 되새겼다.

민 의원은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날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경림 시인의 시를 인용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추위와 통곡을 이겨내고 다시 꽃으로 피어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억식이 열린 '기억의 공간'은 민 의원이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기억의 나무' 식수를 계기로 조성된 곳이다.

수완마을촛불모임 대표는 "세월호 이후 마을에서 기억과 연대의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당시 광산구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이 공간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세월호 추모 공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신항 기억식에 참석한 민 후보는 별도 발언 없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참관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추모 퍼포먼스에 참여한 뒤 현화에 동참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대리투표 의혹' 민주 화순군수 경선 재투표

전략선거구 지정...윤영민 vs 임지락

'안심번호 80%+권리당원 20%' 방식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 절차가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선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화순군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당초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윤영민·임지락 예비후보가 지난 14·15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선 투표(권리당원 50%+일반 여론

조사 50%)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순군 한천면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며 경선이 중단됐다.

특정인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걸어 경선 투표를 대리해줬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곧바로 경선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경선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기존 결선 투표를 모두 무효화하고 투표 방식을 일부 변경해 재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재투표는 윤영민·임지락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20%로 줄이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를 80%로 확대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경선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특보]

- 병원용도: 아파트대단지대로변 250평·450평 --- 4억공짜지원(시설비명목)
- 대형슈퍼, 헬스장, 당구장: 집기제공 --- 6개월 무상임

[급매]

- 재개발대단지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 --- 점포4칸, 주차4대 (급매) 2억6,500
- 서영대역(운암동)주거및자연녹지 투자용 --- 360평 평당80만원 총가2억8,800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